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

-미주 이민자 전낙청의 사랑에 관한 한 상상

전우형**

1. 근대 초기 모빌리티의 균열
2. 소설쓰기의 영화적 상상
3. 상상된 사랑과 헤테로토피아적 공존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근대 초기에 일어났던 이동과 접촉의 한 양상으로서, 한인 미주 이민자의 소설쓰기의 양상과 서사적 상상력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했다. 전낙청이 1930년대 쓴 소설들의 뒤늦은 귀환은 근대 초기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기록과 기억에서 배제되었던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소설들은 단순히 이민 지라는 접경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곳을 새로운 역사와 문화, 제도와 가치 등을 생성하는 공간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 등의 이분법적 인식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이 소설들은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인물들의 자유연애를 중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3079318).

이 논문의 일부는 2020년 5월 22일 발간된 접경인문학 해외자료총서 001, 002 『구제적 강도』(황재문 편역, 소명)의 해설로 수록되었음.

**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부교수

심 사건으로 다루면서, 서양의 자유연애를 탈신비화하는 것과 동시에, 계급, 인종, 성별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에 의해 구획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분할과 경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사랑의 공적인 역할을 발견한다. 전낙칭의 소설쓰기는 잭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민자와 선주민 공동체 사이의 적극적인 교호를 전경화함으로써, 이민자들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장소로서 헤테로토피아를 상상하게 한다.

이 소설들은 그간 종속되고 주변화된 접경에 관한 일종의 기억전쟁을 선포했다. 이민지라는 접경은 지난 세기 이래로 극심한 갈등과 불화들을 경험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유례없이 다양한 공동체와 지역사회들이 연결되는 장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접경은 분할과 점령의 대상이기 이전에 연대와 창조의 공공재였다. 이 소설들은 접경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국가, 지역, 민족 사이의 대립항 속에서만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경이나 경계와 먼, 그래서 고정 불변하는 교착상태가 아니라, 중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로서 접경이야말로 다양한 만남을 통해 도래할 역사와 문화를 선취하는 시공간이었으며, 공동체였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전낙칭, 사랑, 공적 감정, 헤테로토피아, 『구제적 강도』)

1. 근대 초기 모빌리티의 균열

이 글은 근대 초기에 일어났던 이동과 접촉의 한 양상으로서, 한인 미주 이민자의 소설쓰기의 양상과 서사적 상상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근대 초기의 이동은 대체로 서양으로부터 동양으로 정향된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그 역방향의 모빌리티는 예외적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

별적인 것으로 축소시키거나, 집단적인 것으로 뭉뚱그려오기 일쑤였다. 이 현상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안에 내재하는 다양한 결들을 무시해 온 것도 문제거니와, 그것의 외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더욱 큰 문제이다. 떠났으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여전히 많다. 2년 전 tvN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크게 흥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군이 되어 돌아온 조선의 노비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이다. 충분히 있었을 법한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궁금해 한 적 없던 존재의 귀환은 드라마가 갖추어야 할 서사적 긴장 그 자체였다. 근대 초기 서양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들의 귀환을 영원히 유예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 초기의 다양한 이동을 발견하는 일은 당대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역사에 내재하는 균열을 확인하는 것과 연동된다.

최근 근대 초기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의 모빌리티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¹⁾ 그 중 미주 이민사와 함께 미국 최초의 한인캠프, 파차파에 관한 연구²⁾가 눈에 띈다. 근대 초기 역방향의 모빌리티에 관한 연구들이 대체로 근거리 이동과 경유, 원거리라 하더라도 유학이나 여행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 연구는 정착과 집단 거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들의 정착 과정을 다루면서 경제와 행정 등 조직 구성 못지않게, 각 개인의 일상과 문화 영역을 탐색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기록되지 않아 기억되지 않았던 미주 한인들의 삶을 발

1) 장태한·캐롤 박, 『미주한인사』, 장태한·윤지아 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김동성, 『미주의 인상-조선 청년, 100년 전 뉴욕을 거닐다』, 황호덕·김희진 역, 현실문화, 2015; 성현경 편, 『경성 에리프의 만국 유람기』, 현실문화, 2015; 유충희, 『閔泳煥의 세계여행과 의식의 漸移-한국 근대형성기 조선 축하사절(1896)의 여행기록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2) 장태한,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성안당, 2018.

견해 낸 것, 그들의 조직이 자치적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가 추구한 민주주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재구성한 것 등, 이 연구의 성과는 그들의 삶과 문화,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 파차파와 그 구성원들의 삶이 현지에 적응하거나 모국을 그리워하는 수동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연대하는 역동적인 것이었음을, 게다가 식민지 조선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이 연구는 그들이 빚고 남긴 문화를 통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는 단순히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아니라, 그들의 자발적인 민주주의 공동체이자 미국 사회와 식민지 조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상호작용하는 주변과 아래로부터의 삶을 증명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파차파 캠프에 관한 이 책은 문화와 관련 내용 중에 미주 이민 및 파차파 1세대 중 한 사람인 전낙청 일가의 기록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³⁾ 최근 기록 전문이 유족의 기증으로 공개되었고 그 중 소설과 수필이 각각 주석본과 현대어역본으로 묶여 접경인문학연구단(RCCZ)의 해외자료총서 001과 002로 출판되었다.⁴⁾ 소설로는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 그리고 『삼각연애묘』와 『실모지묘』 등 네 편이 포함되었다. 이 책은 ‘구제적 강도’ 제하의 노트에 실린 세 편의 소설, 『구제적 강도』, 『삼각연애묘』, 『실모지묘』. 그리고 『오월화』라는 제하의 노트에 실린 『오월화』의 선집이다.⁵⁾ 분량을 기준으로 『오월화』, 『삼각연애묘』, 『실모지묘』는 단편, 『구제적 강도』는 중편 정도에 해당된다.⁶⁾ 『오월화』와 『구

3) 장태한,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성안당, 2018, 193-199쪽.

4) 전낙청, 『구제적 강도』, 황재문 편역, 소명, 2020.

5) 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351-353쪽 참조.

6) 원문을 해제한 황재문에 의하면 『오월화』는 22면(200자 원고지 약 200매), 『구제적

『구제적 강도』는 소설 한 편의 상하권으로 보일 정도로 상호텍스트성이 두드러진다. 이 소설들 중 두 편의 소설은 모두 한인 이민자 책 전의 연애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국제연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연애, 그 중에서도 국제연애가 이야기의 중심에 놓인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 두 개의 키워드는 이 소설이 식민지 조선과 미국 사이의 접촉과 교차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자유연애를 통한 근대적 자기 구원을 표방하는 이 소설은 이광수의 『무정』이 미국사회와 만나 확장된 이본처럼 보인다. 『무정』의 연애가 서양의 계몽사상을 통합하는 서사적 장치라면, 『구제적 강도』의 연애는 서양의 계몽사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서사의 장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작품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깊은 책의 연애관은 이민자로서의 한 개인의 운명을 넘어 경계를 사이에 둔 양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상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텍스트들은 서양과 동아시아 사이의 모빌리티와 계몽의 역할을 해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접촉과 교차의 문화적 산물처럼 보인다.

전낙청(1876-1953)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나 1904년 하와이를 거쳐 1907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오렌지농장, 철도, 호텔을 전전하며 노동자로 일하면서 쓴 소설과 에세이는 따로 출판하지 않고 딸 엘렌 전과 손녀 멜린다 로가 보관하고 있다가,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기증되면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⁷⁾ 원본은 현재 USC의

『강도』는 82면(200자 원고지 약 740매), 『실모지묘』는 27면(200자 원고지 245매), 그리고 『삼각연애묘』는 34면(200자 원고지 315매) 정도의 분량이다. (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351-352쪽 참조.)

7)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흥경래란에 대한 기억-전낙청의 『흥경래전』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4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6쪽.

동아시아 도서관(East Asian Library)에 세 편의 장편소설과 다섯 편의 단편소설, 그리고 여섯 편의 에세이와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 소설들은 명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으나 1930년대에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가 경제공황과 그로 인한 미국의 구제정책 등을 다루고 있는 점, 『삼각연애묘』에 남경정부와 그 이후 중국의 정세가 등장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둘 때 1930년대 초반의 미국과 동아시아 정세를 지켜 본 자의 시점(時點)이 확인된다. 또한 『삼각연애묘』는 미국만이 아니라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한인 미주 이민자의 독백이라기보다 서양과 동아시아 사이의 대화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병존하게 하는 서술 방식 역시 경계 너머 혼종적인 서사의 성격을 강하게 환기한다. 이 선집의 해제를 맡은 황재문은 이 작품들에서 표기 형식과 문장, 소재, 구성 등에서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떠난 한국과 미국의 것이 뒤섞인 문학/문화적 혼종성을 간파했으며⁸⁾,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들의 판소리 관련 서술양상에 관한 논의도 최근 제출되었다.⁹⁾

선행연구가 언급하고 있는 서술방식 외에도 전낙청의 소설들은 한반도, 하와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상하이의 일상과 문화를 반영함으로써 소설세계를 넓히고 있다. 이 개방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그의 소설들은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네 작품 중 두 작품에서 한인 미주 이민자, 잭 전이 주인공이며, 그는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하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동아시아로 이식된 서양의 모방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암시하는 장치로 확장된다. 다음으로는 연애소설답게

8) 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화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참조.

9) 이지영, 『20세기 초 미주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303-337쪽 참조.

책의 연애가 중심 모티프로 등장하는데, 그의 연애는 늘 복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소위 치정의 양상을 띠지는 않는데, 이 일대 다수의 연애는 공적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표제작인 『구제적 강도』에서는 이 공적, 정치적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사회적 실천으로 표출되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그녀의 가족을 위해 은행 강도가 되어 스스로를 희생하는 장면으로 등장한다. 이 소설은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서양이 계몽/이식하지 못한 정치적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제시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일방적 관계를 의심케 한다. 이 지점에서 이 서사는 서양과 동아시아 사이의 관계를 탈구축하는 접경(Contact Zones)의 문화적 상상력을 수행한다. 이 소설들은 책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민자와 선주민 공동체 사이의 적극적인 교호를 전경화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전낙청의 소설과 글쓰기 행위가 내포하는 접경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접경성은 그의 글쓰기가 이루어진 지리적 성격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과 한국, 나아가 서양과 동아시아라는 당대의 일방적 관계에 내재하는 균열을 드러내는 역학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다룬 소설 모두 한글과 영어, 한자어를 자유롭게 혼용한다. 뿐만 아니라 문체마저도 고전소설과 근대소설, 그리고 영문소설을 종종 무진한다. 이 텍스트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혼종성을 통해 이민자가 놓인 사이공간(In Between Space)을 양쪽의 경계를 낮추는 접촉지대로 재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재현이 특정 현실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할 때, 접경성은 현실과 재현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적 재현, 즉 재현의 정치를 수행한다. 서양의 동아시아 침탈이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동원되었던 계몽 등과 같은 지배의 장치들이 과연 일방으로 정향된 것이었는지

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당시의 계몽에 관한 연구가 주로 그것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오리엔탈리즘에 주목해 왔다면, 접경성은 계몽을 관계의 역학에서 조명하게 해준다. 접경은 흔히들 중심의 지배를 받는 주변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끊임없이 자신의 주변적 위치를 스스로 배신하는 역사와 문화를 생성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 글은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주인공, 복수의 연애, 그리고 표제인 ‘구제적 강도’가 계몽을 통해 이식되지 않은 것들의 환기를 통해 그것에 균열을 일으키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을 상상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소설쓰기의 영화적 상상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는 소설 한 편의 상하권으로 읽힐 정도로 상당 부분의 상호텍스트성이 발견된다. 우선 등장인물과 사건,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의 연속성이 눈에 띈다. 두 작품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잭 진, 조선으로부터 이주해 온 10대 소년이다. 『오월화』가 잭의 하이스쿨 재학 시절을 다루고 있다면, 『구제적 강도』는 졸업 이후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잭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수학 영역에서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그 학교 및 주변 학교의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을뿐더러, 자신을 좋아하는 여인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 그곳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을 것 같은 예의를 갖춘 인물이다. 수학을 잘 하는 어린 등장인물은 『실모지묘』의 아더에게도 적용되는데, 이때는 헤어질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만남의 근대적 양상을 환기한다. 두 작품의 중심 사건은 물론 잭의 연애이다. 『오월화』가 잭이 자신을 흠모하는 수많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의 마음에 오롯이 새긴 캐더린에 대한 고백이 결렬되는 서

사라면, 『구제적 강도』는 와이오밍에서 만난 팻시 영과 하이스쿨 시절 첫 개인교습을 해주었던 에바 해스링 사이에서 후자와의 연애가 성사되는 서사이다. 이 과정에서 『구제적 강도』는 하이스쿨 시절 책의 구애를 거절한 여인의 후일담을 소개하고, 『오월화』에는 잠깐 시사된 이민 또는 이주자의 연애에 관한 다기한 상념들이 변주되고 있다. 두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은 책의 하이스쿨 시절부터 졸업 이후 실업자 구제 캠프에서 일했던 1930년대의 1년 남짓,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와이오밍을 왕래 하면서 연속성을 지닌다.

『오월화』는 “열여이 하잇스쿨 (Highschool)”에 입학한 책 전이 수학 실력이 뛰어나,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에바 해스링에게 개인교습을 약속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책은 캐더린 골든버그, 엘리노 스미트, 메이 플라워 등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그의 수학 재능은 학교 안팎으로 화제가 된다.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메이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책은 학업과 개인교습에 열중한다. 같은 클래스의 일본인 이주자 해리 다카하시와 젠 숙의 연애는 책의 이런 면모와 비교되어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구설수에 오른다. 그러던 중 황인종인 책의 수학 재능을 의심하는 교사 및 일부 학생들과 갈등을 겪게 되고, 교사가 즉흥적으로 낸 문제를 그보다 먼저 풀이함으로써 실력을 입증한다. 이후 경제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청년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설된 야학에 책이 교사로 참여하게 되고, 다른 클래스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냄으로써 학무국장으로부터 직접 찬사를 받는다. 어느덧 졸업이 다가오고, 학무국장은 졸업식 연설을 맡은 캐더린을 대신해 책을 추천하나, 책은 캐더린이 실망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고사한다. 책은 캐더린에게 연정을 고백하고 캐더린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올곧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인종과의 연애를 두고 갈등에 빠진다. 졸업식을 마친 후, 책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댄스파티였지만 캐더린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되고 역시 그의 예의바른 태도로 좌중의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잭은 캐더린이 패서디나의 부호 아들과 약혼한 사이임을 알게 되고,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 그러는 사이 정혼자인 카파리가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에바가 자주 잭의 꿈을 꾸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구제적 강도』는 졸업 이후 “씨씨 캠프(C.C. Camp, 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서 구제사업을 마치고 리버사이드로 돌아온 잭 전이 우연히 에바와 만나고, 안부를 묻는 에바에게 잭이 옐로우스톤 국립공원(Yellowstone National Park)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진 팻시 영을 구해준 뒤로 그녀에게 수학을 가르치며 친분을 쌓았다는 근황을 전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잭과 동료 해리는 팻시와 그녀의 친구 매리 그린과 주말에 만나 어울렸고, 두 여인 모두 잭을 흠모했으나, 정작 그는 매리에게 자신의 동료 해리를 주선해 주고, 팻시의 구애는 정치인이 되려는 그녀에게 이인종 남성과의 연애가 득이 될 리 없다는 점을 들어 정중히 거절한다. 잭과 에바는 에바의 청으로 함께 간 호텔 댄스파티에서 그녀의 정혼자인 잔 카파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에바의 집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잔을 잭이 제압하고, 이후 거리에서 잭을 범죄자로 모함하려던 잔은 오히려 망신을 당한다. 그러던 중, 독립기념일 휴가를 맞이한 에바가 오빠 부부인 얼머와 헤셀, 그리고 잭과 함께 옐로우스톤으로 여행을 떠나고, 그곳에서 팻시, 매리, 사라, 앨라스 등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잭의 제안으로 앨라스의 학비 마련을 위한 공연을 연다. 그런 잭의 모습에 반한 에바에게 잔이 다시 접근하고, 잔의 계략으로 에바는 음주운전으로 끔찍한 교통사고를 낸 범죄자가 된다. 잭이 보석금을 마련해 에바를 집으로 데려오지만, 에바는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잔을 먼저 총으

로 썩 살인범까지 된다. 잔의 아버지는 무뢰배, 카멜토 카멜로를 고용해 에바를 암살하려고 하나 잭이 먼저 이를 제압해 잔과의 관계가 마무리된다. 잭은 교통사고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은 에바의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을 하나, 배상금을 채우기 직전에 탕진한다. 결국 잭은 은행에 잠입해 은행장으로부터 실업자들을 위한 구제기금 50만원을 받아 에바의 배상금과 실업자 구제금으로 반반 사용하는 '구제적 강도'를 감행한 뒤, 호외신문의 자신의 범행에 관한 대서특필을 뒤로 하고 에바와 만나 키스를 나누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난다.

『삼각연애묘』는 캐나다 위니펙 근처에 사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루비 그래함이 온타리오대학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부녀학을 전공한 뒤, 외숙 게일이 선교사로 일하는 상해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게일은 루비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루비와 상해에서 태어나고 자라 영국에서 대학을 마친 조지 홉킨스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는다. 학교 교사로 일하는 루비에게 유일한 여가는 조지와 대화를 나누고 상해의 문화를 탐방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길수록 루비와 조지는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그들은 이를 연애, 특히 중국의 연애관에 관한 진지한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기에 이른다. 그러던 중 구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장강주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셋은 삼각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조지를 사이에 두고 루비와 강주는 서로에게 중국인과의 연애를 권유할 정도로 날카롭게 대립한다. 조지와 강주가 싱가포르에서 정혼한 사실을 안 루비는 절망하고, 조지와 강주의 자유연애관과 루비의 순결주의는 끝내 화해점을 찾지 못한다. 결국 세 사람은 연애와 사랑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루비, 강주, 조지의 순서대로 자살로 생을 마치고 만다. 루비의 죽음을 뒤따른 강주와 조지는 그녀와의 합장을 유언으로 남기고, 결국 세 사람이 합장한 묘 앞에

는 '삼각연애의 무덤'이라는 비석이 세워진다. 『실모지묘』는 플로리다 잭슨빌 근방에 살던 프랭크 벳과 아내 엘리노 클내슈비, 그리고 홀어머니와 아들 아더 네 식구가 남캘리포니아 레드랜드로 이사해 굴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굴농사의 호황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사관학교를 졸업한 벳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프랑스로 떠나면서 가족 간의 이별이 발생한다. 벳이 떠난 후 외로움에 시달리던 엘리노는 농장의 관리인 존 맥밀란을 유혹해 함께 달아난다. 한편 벳은 파리에서 모범적인 장교생활을 하던 중 전사한 장교의 딸 루시아노 까보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지만 전공을 세우고 그녀의 청혼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느 날 어미를 잃은 고양이를 보던 엘리노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돌아온 그녀를 받아주지 않던 벳에게 아더와 딸 메리가 애원을 하자 부모 사이의 사랑 앞에서 결국 벳은 그녀를 용서하게 된다.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의 주인공인 잭 전은 물론 허구의 인물이지만, 전낙청 일가의 체험과 상상이 투영되어 직조된 캐릭터이다. 잭 전은 실제로 전낙청의 셋째 아들의 이름과 일치한다. 장태한의 조사에 의하면 파차파 캠프에 정착한 전낙청의 가계는 3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 전채수의 두 아들로 전낙준과 전낙청이 있고, 둘째인 전낙청은 오버트, 샘슨, 엘리자베스, 앨렌, 잭, 아모스, 에서 등 5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첫째인 전낙준은 경부, 경무, 경유 등 세 아들을 두었다.¹⁰⁾ 실제로 전낙청의 아들 잭이 주인공 잭의 나이와 유사하기는 하나 이름처럼 일치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한민보』 1934년 7월 5일자에는 “팔리택릭 중학에 우리의 수재”라는 기사가 실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장태한,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성안당, 2018, 193쪽.

연년이 팔리택릭 중학에서는 한인 학생이 우등생으로 기록을 지어놓음은 누구나 아는 바라.(중략) 전낙청 씨의 장남 오마스 군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며, 그 중에 **오마스 군은 수학에 능한 고로 학교 그 학교 야학부까지 수학 교수까지 하였다 한다.**(중략) 전오마스 군은 미국에 「엔지니어」 학교로 가장 유명한 「캘텍」으로 입학하리라 한다.¹¹⁾(인용자 강조)

위의 기사 중 수학에 능하고 야학부 교수까지 했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소설 속 주인공 잭 전은 실제의 잭이 아니라 그의 동생 오마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스앤젤레스와 리버사이드 등 캘리포니아를 넘어 와이오밍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여성마다 그를 흠모하게 만든다거나, 짧은 시간 안에 거금을 융통하고, 도박에도 능하며, 결국에는 은행강도마저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인물은 아무래도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다.¹²⁾ 이 완벽한 캐릭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세 편의 소설에는 당대 미국의 대중문화가 직접 인용된 장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댄스파티 도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거나 그들이 직접 부르는 노래, 그리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잭과 에바, 팻시 일행이 기획한 공연에 초청된 가수가 부르는 재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못지 않게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대중문화가 있다면 바로 영화이다. 세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또 그들의 데이트 코스에서 영화는 자주 소환된다. 여기에는 무성영화나 발성영화 같은 극영

11) 장태한,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성안당, 2018, 158-159쪽에서 재인용.

12) 황재문은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의 중심사건이 만국통혼(萬國通婚), 특히 황백통혼(黃白通婚)인 점에 착안하여 전낙청 일가 중 당시에 이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전경무가 잭의 모델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369-370쪽 참조.)

화뿐만 아니라 보드빌(Vaudeville) 같은 공연양식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소설에 인용된 영화의 경우, 소설이 창작될 당시를 기준으로 상당히 동시대적인 것이었고, 제목만이 아니라 배우, 캐릭터 이름만 들어도 단번에 내용을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것들이었다.¹³⁾ 인용된 작품이나 빈도, 그리고 서술방식을 감안할 때, 전낙청은 평균 이상의 영화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부사항을 기억할 정도로 영화를 보았거나, 적어도 기록을 찾아볼 수준은 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대중의 영화 취향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⁴⁾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해 여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로맨스의 주인공이자, 게다가 악당을 제압하고 도박에도 재주가 있는 등 느와르(noir)의 세계마저 장악한 인물이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앞을 다투어 쏟아내는 로맨스와 액션 장르의 전형적인 캐릭터였고, 따라서 책의 대부분은 영화로부터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소설들의 영화 인용이 비단 인물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상해를 배경으로 세 남녀의 연애사건을 다룬 『삼각연애묘』는 영화와 더욱 관련이 깊다. 공교롭게도 『삼각연애묘』에서 영화가 인용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소설을 쓰던 당시 상해 경험이 없었던 전낙청에게 그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을 상상하게 만든 원천으로 영화만한 것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게다가 『삼각연애묘』는 전낙청의 변함없는

13) 『삼각연애묘』에서 루비와 조지가 함께 자동차극장에 들어가 본 두 편의 영화를 서술하는 장면에서 등장한 “노마 쉬어러가 이혼하는 영화”에서 노마 쉬어러(Norma Shearer, 1902-1983)는 1930년대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스타였고, The Divorcee로 짐작되는 이 영화를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구제적 강도』 본문의 황재문 주석 참조.)

14) 전낙청은 “폴라 네그리”, “미술가와 연애하는 영화”, “노마 쉬어러”, “이혼하는 영화” 등 배우 이름과 중심사건을 단편적으로 제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영화 제목을 스스로 연상하게 하는 대화적 서술을 시도하고 있다.

캐릭터가 공간을 초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할리우드 중심의 당대 미국영화가 로맨스와 액션으로 장르화되면서 전 세계를 단일한 시간대로 재편하는 역할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이를 통해 전낙청이 미국영화광이었음만을 증명하고자 함은 아니다. 또한 1930년대라면 단순한 상호텍스트성 너머 소설쓰기의 영화화가 하나의 보편적 경향으로 자리잡은 때이기도 하다. 세 소설 모두 대화를 서술할 때, 큰 따옴표로 표시하거나 앞에 발화자를 따로 명시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전자가 소설에서 익숙한 것이라면, 후자는 희곡이나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표기법이다. 소설의 영화화, 영화의 소설화에 대한 문화적 증거로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영화소설이 이 두 가지 표기법을 병행하고 있어¹⁵⁾ 이를 전낙청 소설쓰기의 영화화에 대한 증거로 삼을 만하다. 소설이 썬 당시와 다소의 시차는 있으나, 미국영화의 전 세계 흥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화가 연속영화(Serial Film)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 외에도 전낙청의 소설쓰기가 이어쓰기와 다시쓰기로 변주되는 것 역시 영화에 대한 모방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소설의 영화화인가.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에서는 이민자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과 부당, 그리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가끔 책의 입을 통해 파편적으로만 언급될 뿐이다. 이민자 모두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이 소설들에서는 일부러 삭제된 느낌이 강하다. 영화야말로 현실을 지우는 데 탁월한 미디어이다. 영화 속 인물과 시공간은 현실의 그것과 전혀 다르고, 관객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 현실에 탐닉하는 이중의 현실 소외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영화관이다. 전낙청의 소설쓰기는

15) 전우형, 『식민지 조선의 영화소설』, 소명, 2014 참조.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이민자가 자유로운 세계의 주인 되기에 대한 욕망으로 보인다. 소설 속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파티와 책의 활약상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타지이다. 파티의 무한 반복은 이민자에게 파티를 한없이 낫선 일상이면서 동시에 이민자의 소외상태를 극복할 기회의 공간으로 상상하게 만든다.¹⁶⁾ 이를 위해 그의 소설쓰기는 현실에 엄연히 존재하는 분할의 경계들을 넘어 무한히 확장하는 서사의 전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선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온갖 차별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사이와 주변의 속명에 편입된 이민자로 하여금 적어도 세계의 동시대성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공공재였다. 그래서 『삼각연애묘』와 『실모지묘』의 변화가 흥미로운데, 전낙청은 이 두 소설을 통해 이민자는 물론 선주민에 대한 관찰자의 시선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주변적 위치를 중심으로 전유하는 뫼비우스의 판타지를 완성한다.

3. 상상된 사랑과 헤테로토피아적 공존

전낙청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영화적 의장을 갖추고 있다는 하나, 근본적인 것은 지성과 인성, 그리고 감수성 모두 뛰어난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전낙청 소설의 분량에 비하면 사건 자체가 빈약한 편인데, 대부분의 서술이 주인공의 인물됨을 제시하는 데 편재되어 있다.

16) 『오월화』에는 졸업식을 마친 책이 “코리아인 국민회”에서 마련한 파티에 가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 파티에 관한 서술은 책이 생활담을 말하고 준비된 다과를 먹고 해산했다는 요약 제시로 대체된다. 서양 친구들에게 초청받은 다른 파티와는 성격이 다를 뿐더러 서술의 구체성도 결여되어 있다.

단순화하기는 곤란하나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 『삼각연애묘』, 『실모지묘』의 주된 사건은 주인공 남녀의 연애, 또는 그와 연루된 개인적/사회적 갈등 등이다. 게다가 이것이 중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의 비중은 작고 그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이다. 『오월화』에서 캐더린에 대한 책의 연모하는 마음은 소설의 꼬트머리에 잠깐 등장하고 캐더린의 약혼남이 등장하며 너무 쉽게 끝나버린다. 『구제적 강도』를 예로 들면 이 상황은 더욱 극단적이 되는데, 책과 팻시, 그리고 책과 에바 사이의 연애는 그들의 일상에 묻혀버리기 일쑤며, 책과 에바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역시 너무 늦게, 그것도 잠깐 동안 스쳐지나간다. 『실모지묘』 역시 연애와 사랑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성적 긴장에 관한 요약 제시의 성격이 강하다. 『삼각연애묘』에 이르면 연애를 다루는 전낙청의 서술패턴이 명징하게 드러나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까지의 지난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많이 서술되는 것은 각 인물의 성격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어떤 면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또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서술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각 개인의 면모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사랑은 특별해 보인다. 지성과 인성, 감수성을 겸비한 인물들 간의 사랑이 표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연애의 자격으로서 각 개인에게 너무 많은 자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과 맞닿아 있다. 연애, 특히 전낙청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연애는 자유연애이다. 그 중에서도 만국통혼(萬國通婚)이나 황백통혼(黃白通婚) 등 당시로서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자유연애라 할 수 있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자유연애란 동양의 전통에는 부재하는 낯선 것이다. 정혼의 세계에서 연애란 불가능하다. 『삼국연애묘』는 루비와 조지의 대화를 통해 동아시아 내에 연애의 부재를 끊임없

이 확인해 주고 있다. 상해에서 태어나 자란 조지는 동아시아에서의 연애관 역설적으로 그것이 결여된 가족 간 결합으로서의 결혼으로 대체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 연애의 자격을 지나칠 정도로 요구하는 전낙칭의 관점을 동아시아적 전통의 잔존으로 볼 수 있을까.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족 관계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에서의 잭은 누이와 동생만 등장하거나, 『삼각연애묘』에서 루비는 혈혈단신으로 등장한다. 무엇보다 가문이 아니라 개인의 수월성이 사랑의 자격으로 전제되는 것처럼 보여 동아시아적 전통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동아시아적인 것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지 않고 주인공의 반대편에 투사(projection)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월화』에서 잭이 연모하던 캐더린에게는 집안에서 정한 약혼자가 있었고, 『구제적 강도』에서의 에바 역시 그러하다. 『삼각연애묘』에서 루비는 외숙과 외숙모의 평판이 조지에 대한 애정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일종의 투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유연애는 말 그대로 근대적인 자아가 되는 통과의례인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연애는 개인을 중심으로 구축한 새로운 사회질서이며 서양이 동아시아에 이식한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이광수의 『무정』은 영채와 선형 사이에 선 형식을 통해 전통적인 연애관과 근대적인 연애관의 혼재 또는 갈등의 사회상을 재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정은 전낙칭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덧씌우는 투사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이 투사는 오히려 자유연애의 발신지에 내재하는 균열을 드러내기 위한 의장처럼 보인다. 가문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유연애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잭의 구애를 거절하면서 캐더린은 잭의 왜소한 체구를 탓하나,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패서디나 부호의 아들을 약혼자로 둔 까닭이다. 에바가 일찌감치 책을 마음에 두었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한 것 역시 집안끼리 맺은 정인(情人)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낙청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 이민자가 겪는 현실의 고통을 드러내려고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장면은 같은 시기 서양이 동아시아에 이식했던 자유연애의 민낯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 흥미롭다. 전낙청의 첫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오월화』는 곳곳에 인종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드러내고 있다. 책과 메이, 그리고 해리를 두고 “타타르”, “잡”, “갈라걸” 등의 속어들이 난무하고, 이들에 대한 타자화 뿐만 아니라, 세 사람 사이에서조차도 이러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결국 자유연애의 민낯은 단지 이민자로서의 설움을 폭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연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분할과 경계를 폭로하는, 나아가 개인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서양 계몽사상의 허위의식을 들추어내는 것과 연동되어 있다.

『삼각연애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연애와 서양의 연애를 비교한다. 루비와 조지의 대화 속에서 동아시아는 개인 간의 행위를 금기시하는 문화 때문에 연애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둘의 비교는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의 연애, 또는 사랑은 복수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연애의 경험이 전무한 루비는 사랑이나 연애를 마치 소설이나 영화 속의 사건쯤으로 대하며 삼각연애야말로 가장 연애다운 것으로, 또 중국에서는 일대 다수 사이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조지의 말에 호기심을 느낀다. 그들은 동아시아의 예모(禮貌)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서양식 교육이 수월했을 것이라는 오리엔탈리즘의 입장에서 서 있는 부류이다. 이런 그들에게 조지와 예전부터 알

고 지내던 장강주가 나타나 셋은 말 그대로 삼각연애를 시작한다. 『삼각연애묘』에서 강주는 복수의 사랑과 만국통혼(萬國通婚)이나 황백통혼(黃白通婚)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강주의 이러한 태도는 루비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연애를 즐기기 위한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랑, 그리고 연애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비판해 자살한 루비를 쫓아 곧바로 자살을 하는 순간 강주의 사랑은 개인 사이의 사적인 감정을 초월한다. 강주의 이러한 태도는 루비가 지향하는 순결과 순수가 결국 인종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어 읽힌다. 『삼각연애묘』 내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랑과 자유연애에 대한 신념으로 가득차 있던 루비는 역설적으로 그것을 시도해보지도 못했거나 지켜내지도 못했다. 루비와 조지의 사랑과 연애는 역시 양가의 개입에 의한 것이었고, 그 기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물론 같은 인종이라는 점이였다. 그런데 강주는 루비의 신념, 즉 자유연애로 포장된 순결주의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자유에 의한 연애를 경험했고, 결국 연적을 위한 희생을 통해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다.

강주의 사랑을 동아시아적인 것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삼각연애묘』에서 강주는 중국에서 태어났다지만 구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재원이다. 동아시아의 입장에서 삼각연애, 즉 일대 다수의 사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인종과의 사랑과 연애에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유연애주의자에 가깝다. 게다가 강주는 조지를 사이에 두고 루비와 대결의 양상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각자의 사랑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일종의 이상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시종일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상황이 닥치면 루비와 조지의 사랑을 위해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루비의 자살 즉

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행위 역시 이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강주의 자살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닌 사랑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의 자살은 그녀의 사랑을 단순히 사적인 것을 넘어 공적인 감정에 근접한 것으로 만든다. 강주의 자살은 루비를 위한 행위이며, 그녀는 비로소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마사 누스바움은 최근 감정을 사적인 영역에서 떼어내어 공적인 영역으로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감정 자체의 공적 성격을 강조한다. 공적 감정으로서 사랑은 계급, 인종, 성별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에 의해 구획된 사회에서 타인에게 별어진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나 타인만큼 자신도 취약하다는 사실에 대한 거리두기에 비판적으로 개입한다.¹⁷⁾ 배타적이지 않았던 강주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인종과의 연애를 금기시하는 서양식 자유연애의 반대편에서 서 그것의 허위의식을 들추어내는 정치적 감정이다. 『구제적 강도』에서 책의 연애는 이를 사회적 실천으로 옮기는 행위이다. 에바를 위한 헌신, 즉 ‘구제적 강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계급, 인종 등의 경계를 낮추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 작품들에서 사랑은 사적 소유를 공유될 수 있는 공공재(communs)로 변형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서양의 자유연애에 내재하는 반사회적(a-social) 위기, 즉 인종주의와 오리엔탈리즘 등을 드러내고 들어내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연대와 우정, 함께 있음의 힘에 접근한다.¹⁸⁾

이렇게 볼 때, 전낙청의 페르소나로 볼 수 있는 책의 지적, 정서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성격과 그가 이인종 여인과의 일대 다수의 연애, 그리

17) 마사 C. 누스바움, 『정치적 감정』, 박용준 역, 글항아리, 2019, 410쪽 참조.

18)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 『어셈블라-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제안』, 이승준 · 정유진 역, 알렘, 2020 참조.

고 계급과 인종을 넘어 보여준 그의 사랑은 서양이 동아시아에 이식했던 계몽의 기획,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연애가 지니는 모순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기 위해 빚어진 서사적 의장이다. 책의 성격은 근대적 자아를 길러내기 위한 서양식 교육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계몽의 기획을 조롱한다. 『오월화』에서 자신의 수학 재능을 의심하는 교사와 학생들 앞에서 교사보다 뛰어난 산술능력을 보여주거나 야학의 교사로 활약하는 장면의 배후에는 동아시아의 전통 수학에 기반하여 동서양 수학을 아우르는 통찰력이 놓여있다.¹⁹⁾ 해리를 비롯해 친구들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공감하는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날뿐더러, 이민자이자 이인종인 자신과의 관계가 팻시나 에바 등의 미래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제어할 만큼 윤리적이기까지 하다. 이와 함께 불의로 인해 곤경에 처한 에바와 대공황으로 곤궁한 처지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정의는 미국의 선주민들과 대비됨으로써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이민자에게는 선형적인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책의 구제는 『실모지묘』에서 맥 주토가 파리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구휼하는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이 2장에서 밝혔듯, 이민자로서의 궁핍과 결여를 잊거나 상상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판타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것이 경계를 재구축하고 적대적 타자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화해와 공존의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책의 존재와 그의 사랑은 근대 초기 서양과 동아시아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재

19) 『오월화』에는 책이 대중 앞에서 ‘수리(數理)’를 주제로 강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수학통종(數學統宗)』의 차분(差分)”을 인용하고 있다. 황재문에 의하면 이것이 명의 정대위(程大位)가 저술한 『산법통종(算法統宗)』(1593)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376쪽.)

현 정치를 수행한다.

전낙청의 소설들은 이처럼 근대적 자아에 입사한 개인들에게 권리로 서 부여된 자유연애를 변주하고 있다. 서양으로부터 계몽의 경로를 통해 전파된 이 자유연애가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신화처럼 행세하고 있을 때 이 소설들이 전파지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이민자에 의해 다시 씌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 소설들은 자유연애를 탈신화화함으로써 서양의 다른 근대적 가치들에 내재할 법한 균열과 간극으로 시선을 이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서양과 동아시아 사이의 일방적 관계를 해체적으로 재구성할 계기를 만들었다. 계몽을 통해 이식된 것을 매개로 상상된 서양이 아닌 이식되지 않은 것들을 통해 서양을 현전하게 함으로써 이 소설들은 계몽이 지닌 본래의 폭력성과 대면하고 있다. 『삼각연애묘』에서 루비의 이동은 이 계몽의 기획을 표상하면서, “절반만 개화한 중국 여자”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 기획의 허위의식을 여실히 증명한다. 연애를 중심 사건으로 다루면서 책은 이민과 인종뿐만 아니라 계급과 성별 등에 관한 현지의 법과 사람들의 인식에 내재하는 시차와 시행착오에 대해 도발적인 질문들을 이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들은 이민지라는 접경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곳을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 등 이분법적 구획으로부터 탈구된 공간으로 상상하게 만든다. 이 소설에서 이민지는 이제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고립된 유토피아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을 위한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헤토토피아처럼 보인다.²⁰⁾ 근대 초기 서양으로부터 이식되지 않은 것들, 즉 분할과 경계, 차별과 배제 등이 만연해 있는 미국의 일상을 재현한 이 소설의 뒤늦은 귀환은 근대성 비판의 당대 문학의 전선이 단지, 식민지 조선이나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발신지까지

20)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참조.

확장되어 접경을 형성했던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결론

전낙청의 소설들은 1930년대에 씌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는 2018년 장태한의 연구를 통해 그의 존재가 처음 소개된 이후, 소설들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고, 이제 첫 앤솔로지가 출간되었다. 이 소설들은 따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적이 없어 약 80여 년 만에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당시의 식민지 조선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사이, 고전산문과 근대소설, 영화 사이의 혼종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들은 1930년대 문학의 탈경계적 보편성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존재는 한인 미주 이민자 문학의 기원을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성격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소설들의 뒤늦은 귀환은 근대 초기 모빌리티의 다양성을 복원하고 기록과 기억에서 배제되었던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대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양과 동아시아의 사이공간에서 씌운 이 이민자 문학이 둘 사이의 관계를 다르게 조명하고 있어 근대성을 비판하는 문학 전선의 새 접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 소설들은 단순히 이민지라는 접경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곳을 새로운 역사와 문화, 제도와 가치 등을 생성하는 공간으로 상상하게 함으로써 지배와 종속, 중심과 주변 등의 이분법적 인식에 균열을 만들었다.

『오월화』와 『구제적 강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인 미주 이민자 책은 지성과 인성, 그리고 예술적 감수성을 겸비한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 설정은 서양식 근대적 자아의 모방인 동시에 그것의 허구를 암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책은 시종일관 계몽의 기획을 조롱하고 교란한다. 전낙청의 소설들은 근대적 자아 되기에 입사한 개인에게 부여되는 자유연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책의 연애는 잠정적으로 일대 다수, 즉 복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복수의 연애는 자유연애의 왜곡된 형태라기보다 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형태로 등장하며, 만국통혼(萬國通婚)이나 황백통혼(黃白通婚)을 저지하는 서양의 자유연애가 지니는 모순과 허위의식을 들추어내기에 이른다. 이들의 자유연애는 서양의 자유연애를 탈신비화하는 것과 동시에, 계급, 인종, 성별을 비롯한 여러 정체성에 의해 구획된 사회에서 벌어지는 분할과 경계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사랑의 공적인 역할에 도달한다. 『구제적 강도』에서는 이 공적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정치적 행위로 실천된다. 에바를 구하기 위해 은행강도가 된 책이 대공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근대 또는 계몽의 실패한 기획을 마주하게 하며, 동시에 그것의 구제책으로서 사랑을 제안한다. 이 소설들은 공적이고 정치적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텅빈 기표로서 계몽의 기의로 제안함으로써 서양과 동아시아 양자 사이의 일방적 관계를 의심케 한다. 이 지점에서 이 서사는 서양과 동아시아 사이의 관계를 탈구축하는 접경의 문화적 상상력을 수행한다. 이 소설들은 책이라는 인물을 통해 이민자와 선주민 공동체 사이의 적극적인 교호를 전경화함으로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소설들은 그간 종속되고 주변화된 접경에 관한 일종의 기억전쟁을 선포했다. 접경은 국가와 민족 단위의 인식 프레임이나 이분법적 접근이 빚어낸 최대의 피해자이다. 접경은 이와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그 본의에 오롯이 도달할 수 없는 성소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접경은

국가나 민족 단위,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안적인 텍스트이다.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 종속되지도 않을뿐더러, 자신의 주변적 위치를 스스로 배신하는 역사와 문화의 생성 공간으로서 ‘피비우스의 띠’야말로 접경의 숙명이다. 이민지라는 접경은 지난 세기 이래로 극심한 갈등과 불화들을 경험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유례없이 다양한 공동체와 지역사회들이 연결되는 장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접경은 분할과 점령의 대상이기 이전에 연대와 창조의 공공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은 인간과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일원론적이고 발전론적인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그것의 다층성과 혼종성 등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 소설들은 접경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국가, 지역, 민족 사이의 대립항 속에서만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경이나 경계와 먼, 그래서 고정 불변하는 교착상태가 아니라, 중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로서 접경이야말로 다양한 만남을 통해 도래할 역사와 문화를 선취하는 시공간이었으며, 공동체였다. 이 소설들은 이민지를 고립된 유토피아로 상상하는 대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존을 위한 헤테로토피아로 상상함으로써 접경-되기의 한 양상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전낙청, 『구제적 강도』, 황재문 편역, 소명, 2020.

2. 논문과 단행본

김동성, 『미주의 인상-조선 청년, 100년 전 뉴욕을 거닐다』, 황호덕·김희진 역, 현실문화, 2015.

마사 C. 누스바움, 『정치적 감정』, 박용준 역, 글항아리, 2019.

미셸 푸코, 『헤테로토피아』, 이상길 역, 문학과지성사, 2014.

성현경 편, 『경성 에리프의 만국 유람기』, 현실문화, 2015.

아리프 딜릭 외, 도시인문학연구소 편, 『경제초월자와 도시연구-지구화 시대의 매체, 이주』, 라움, 2011.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어셈블라-21세기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제언』, 이승준·정유진 역, 알렙, 2020.

유충희, 『閔泳煥의 세계여행과 의식의 漸移-한국 근대형성기 조선 축하사절(1896)의 여행기록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지영, 『20세기 미주 이민 서북인의 흥경래란에 대한 기억-전낙청의 〈흥경래전〉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 41(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75-304쪽.

_____, 『20세기 초 미주한인 소설에 나타난 판소리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 『판소리연구』 48, 판소리학회, 2019, 303-337쪽.

장태한, 『파치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성안당, 2018.

장태한·캐롤 박, 『미주한인사』, 장태한·윤지아 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전우형, 『식민지 조선의 영화소설』, 소명, 2014.

황재문, 『「구제적 강도(救濟的強盜)」 연구-1세대 재미 한인의 체험과 문학적 혼종성』,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 345-384쪽.

Abstract

Coexistence of Everything that Exists
-An Imagination about Love of Korean American Immigrant
Nakchung THUN

Chon, Woo-Hyung(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for Historical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key features of the novel writing of Korean American immigrants and their meaning as one aspect of movement and contact occurring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late return of the novels written by Nakcheong THUN in the 1930s is significant in that it restored ideas on the diversity of early modern mobility and confronted the history and culture of immigrants who were excluded from records and memories. Not only are these novels a product of the phenomenon of immigration, but they have also created a crack in the dichotomous perceptions of domination and subordination, center and periphery by envisioning it as a space that creates new history, culture, institutions and values.

These novels treat the free love of intellectual, emotional, and ethical figures as a central event, demystifying Western free love, and at the same time, a society divided by various identities including class, race, and gender. The novels by Nakchung THUN visualize the active exchange between the immigrant and the indigenous community through the character of Jack, and imagines the heterotopia as a place where not for the immigrants' utopia, but for everyone's coexists.

These novels have declared a kind of memory war on the subordinate and marginalized contact zones. The contact zones of the immigration area had been a place for experiencing extreme conflicts and discords, and at the same time, it has served as a place where various groups and communities are connected. The contact zones were common areas of solidarity and creation before being subject to division and occupation. The contact zones are far from the border or borderlands, so it is not a fixed and immutable deadlock. As a world free from central domination the

contact zones have been a space that preoccupied history and culture through various encounters, and have been a community.

(Keywords: Diaspora, Nakchung THUN, Love, Public Emotion, Heterotopia, *Righteous Robber*)

논문투고일 : 2020년 4월 17일

논문심사일 : 2020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20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5월 15일